

개혁주의 교회들을 위한 예배 갱신의 방향

주 종 훈

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예배학

1 서론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지속해왔다. 변화는 단순한 전환이나 막연한 새로워짐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원리에 따른 방향성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체제와 구조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것의 의미와 기능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켜 갱신이라 부른다.¹ 기독교 예배는 이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갱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초대 교회 이후 기독교 예배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와 구성요소들에 대한 조절과 실천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갱신되어 왔다. 즉,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전환할 때, 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

* 논문투고일 : 2012. 7. 5
 논문수정일 : 2012. 8. 29
 게재확정일 : 2012. 9. 18

1 William Abraham, *The Logic of Renewal* (Grand Rapids: Eerdmans, 2003).

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의 구체적인 방식이 변화되었다. 종교개혁자들도 예배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와 방식을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전환시켰다. 국교도들의 종교적 핏박으로 자율적인 예배가 제한되었던 영국의 자유교회들(The Free Churches)도 예배를 버리지 않았고,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문화의 도전과 그 영향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예배들을 시도한 현대 교회들 역시 예배를 전혀 새로운 양식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을 문화에 적합하게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예배의 갱신은 역사적으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다.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예배 방식과 형태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답습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개혁주의 예배 학자인 휴지스 올드(Hughes Old)가 지적한 것과 같이, 두 가지 극단 즉, ‘고고학적 재구성’(archaeological reconstruction)과 ‘예전적 낭만주의’(liturgical romanticism)라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된다.² 따라서, 개혁교회들은 그 핵심 원리(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가 이끄는 바와 같이 예배의 지속적인 개혁 원리(liturgia semper reformanda est)를 실천해야 한다. 이 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리와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의 변화를 시도하는 갱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지 새로운 예배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적합한 원리에 근거하고 현실에 적실성이 있는 변화 즉 갱신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교회 예배의 갱신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좀 더 선명히 이해하고, 오늘날 개혁주의

2 Hughes Old, *Worship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65.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갱신과 관련한 오늘날의 현상과 노력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고찰하고, 둘째로 다양한 예배 갱신들을 통합하고자 시도한 복음주의적 노력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비평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를 시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원리와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 예배 갱신: 현대 교회의 핵심 과제

예배 갱신을 위한 노력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단과 상관없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예배 갱신과 관련한 현대 교회들의 관심은 예배의 의미나 본질과 같은 이론적인 이해(understanding)나 역사적 고찰(historical research)보다는 구체적인 실천(practice)에 집중하고 있다. 예배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1960년 초반 이전에 나온 예배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예배의 본질, 이해, 그리고 역사적 흐름에 대한 평가와 제안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예배학의 독립 이후, 예배를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즉 살아있는 텍스트(living text)로 파악하기 시작했다.³ 그 실천에 담긴 신학적 의미와 영적 의

3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가리켜 'primary theology' 라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연구를 다루는 조직신학과 같은 연구를 'secondary theology' 라 부른다. 전자는 하나님에게 직접 고백하고 표현하는 신학적 언어들을 포함한다. 반면 후자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신학적 언어들을 포함한다. 예배학에서는 Aidan Kavanagh에 의해서 이러한 primary theology와 secondary theology가 선명히 구분되었고, 그의 제자 David Fagerberg가 이러한 구분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을 발전시켰다. Aidan Kavanagh, *On Liturgical Theology* (Collegeville: A Pueblo Book, 1992) 그리고 David Fagerberg, *What is Liturgical Theology? A Study in Methodology*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2)와 *Theologia Prima, What is Liturgical Theology?* (Chicago: Liturgical Training Publications, 2004)를 참고할 것. 이와

미들을 본격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 실천에 대한 학문적 접근 뿐 아니라, 그 실천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일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예배와 관련한 질문들은 예배의 본질과 이해보다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질문들이 더 많이 제기된다. 나아가 교단 내지는 신학적 전통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예배 스타일과 방식에 대한 고찰과 적용이 주된 갱신의 방향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 교회의 예배의 실체가 북미의 대형교회들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수용과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경배와 찬양, 구도자 예배, 미디어의 적극적인 사용, 현대 예배 음악의 도입 등은 모두 물론 둘 사이를 쉽게 분리할 수 없지만 이론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실제와 관련한 것들이다.

또한 예배의 갱신을 연구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공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예배의 본질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⁴이 갱신의 원리로 제기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예배와 문화의 통합, 예배 갱신을 위한 목회자의 역할 및 회중들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예배 실천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북미의 경우, the Alban Institute (감리교단), the Brehm Center of Worship, Theology, and the Arts (복음주의), the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 (개혁주의에 바탕을 둔 복음주의) 등은 대표적인 예배 실천의 갱신을 위한 기관들⁵인데, 이들 연구 기관들이 제공하는 컨퍼런스나 예배와 관

아울러, 예배학의 연구 대상이 예배의 실천에 담긴 의미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Alexander Schmemmann,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66)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4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토저(A. W. Tozer)나 마르바 턴(Marva Dawn)의 경우 예배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연구와 저술로 예배학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런한 문헌 및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은 실제로 학문 활동을 하는 학자들에
 계만 제한되지 않고, 실제 예배의 실천 영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예배 인도
 자들 및 예배 참여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예배 갱신과 관련한 주제들과 이에 상응하는 노력들은
 교회의 핵심 과제로서 예배가 얼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갱신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은 역사적 기반을 기
 초로 주어진 현상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지닌 교회들의 예배
 갱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하기 전에 먼저,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예배 갱
 신의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흐름 가운데서 개혁주의 교회들
 을 위한 갱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예배 갱신: 공통의 관심사 그러나 서로 다른 방법들

예배 갱신은 초대교회 이후로 즉 교회의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되어
 왔다. 종교 개혁도 일면 성경적 예배 갱신이라 볼 수 있고, 영국 국교회의
 펍박으로 인해서 형성된 자유 교회 전통(the Free Church tradition)도 예배 갱
 신의 측면을 지닌다. 각기 다른 신학적 전통들과 교단들도 나름의 신앙고
 백을 지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예배 모범과 그 실천을 통해서 현실에 근
 거한 갱신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예배 갱신은 교회 역사에서 최근 약 50여
 년 전부터 매우 체계적으로 본격화 되었다. 1963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서 예배의 친문화화를 공표한 후부터 예배의 갱신은 교단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예배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갱신의 구체적인

5 이 기관들의 웹사이트들(www.alban.org, worship.calvin.edu, www.brehmcenter.com)을 살
 펴보면,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배갱신의 자료들이 얼마나 실천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포
 함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방향은 교단과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 즉 로마 카톨릭, 주요 개신교단, 그리고 오순절 전통의 갱신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왔다.

먼저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라틴어로 진행되어 오던 예배 모범을 각 예배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게 했고, 동시에 성찬 중심의 예배를 유지하면서, 설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메리 힐컷(Mary Hilbert)의 *Naming the Grace: Preaching and the Sacramental Imagination*⁶은 개신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설교의 의미와 역할을 로마 카톨릭의 예배 안에서 새롭게 소개하고 강화한 의미 있는 저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신교의 대표 교단들 역시 구체적인 방향과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통적 예배의 복원과 재구성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예배 모범서들에 대한 복원과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바드 탐슨(Bard Thompson)이 1960년대 초반에 서구 교회들의 예배 모범서들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수반한 책인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⁷는 바로 예배 갱신의 원리와 방향을 전통적 예배 모범에서 찾기 위한 시도를 보여준다. 이후, 계속해서 예배 모범서에 대한 연구와 재편집 및 보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⁸ 이러한 예배 모범에 대한 관심과 복원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예배 갱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전통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운동(charismatic movement) 역시 1960년대 이후 예배 갱신에서

6 Mary Hilbert, *Naming the Grace: Preaching and the Sacramental Imagination* (New York: Continuum, 1997).

7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61).

8 예를 들어, *The Book of Common Worship*은 1978년과 1983년에 수정보완해서 출판되었고, *Book of Common Order*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는 *Prayers for Sunday Services*도 1980년에 새로운 보급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4년에는 북미의 칼빈 예배연구소에서 *The Worship Source Book*을 출판해서 예배 실천과 갱신의 매뉴얼로 사용하도록 보급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의 갱신은 주로 예배에서 음악을 중요한 위치로 부각시켰으며, 복음주의 전통에 속한 많은 교회들에게 음악의 역할을 마치 말씀이나 성찬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된 요소로 자리 잡게 했다.⁹ 랍 레드만(Robb Redman)은 그의 책, *The Great Worship Awakening: Singing a New Song in the Postmodern Church* (2002)¹⁰에서 현대 교회 예배에 나타난 문화적 영향과 그 대표적인 형식인 음악이 다양한 방식들로 재구성되면서 예배를 갱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매우 잘 기술해주었다. 물론, 구체적인 역사적 발전 과정은 다르지만, 경배와 찬양, 구도자 예배 그리고 이후 이머징 예배 등과 같은 대안적 예배 형태들은 모두 전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음악으로 대표되는 문화와 깊은 연결을 통해서 갱신을 시도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4 예배 갱신의 복음주의적 통합: 로버트 웨버 (Robert Webber, 1933-2007)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예배 갱신운동에 대한 위의 간략한 고찰은 오늘날 예배 갱신의 과제를 지닌 교회들에게 매우 다양한 기회들 또는 상대적인 혼란을 제공한다. 이런 상황 즉 갱신의 필요성과 과제는 동의하지만, 갱신의 방향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여러 예배 공동

9 기독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즉 말씀, 성찬, 그리고 음악이다. 이 가운데 복음주의자들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Sarah Koenig, "This is My Daily Bread: Toward a Sacramental Theology of Evangelical Praise and Worship," *Worship* 82 (2008 no 2): 141-161 그리고 Lester Ruth, "A Rose by Any Other Name," in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ed. Todd Johns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2), 46-51을 참고할 것.

10 Robb Redman, *The Great Worship Awakening: Singing a New Song in the Postmodern Church*(San Francisco: Jossey-Bass, 2002).

체들을 향해서, 역사신학자 로버트 웨버는 모든 현대 교회들의 예배 갱신을 위한 통합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전통과 현대를 통합한 예배’를 주장한 웨버는 “각각의 예배 방식이 서로 다른 방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each pattern of worship is now influencing the others)”¹¹는 현실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른바 ‘중도적 예배’(blended worship) 또는 ‘통합 예배’(convergent worship)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배와 관련한 그의 통합적 노력은 예전적 전통과 비예전적 전통을 실제로 경험한 그의 삶과 과거의 역사를 현재와 통합시키는 그의 역사적 학문 연구 방식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다. 즉, 그는 교단의 구분을 넘어서서 오늘날 예배 공동체가 실천하는 기독교 예배의 통합을 주장했고, 전통의 유산과 현대 문화의 특성을 동시에 조화하는 예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들을 시도했다.¹²

예배 갱신과 관련해서 통합적 방식을 시도한 웨버의 노력은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우선, 가장 큰 기여는 기독교 역사의 전통에 대한 가치를 현대 교회에 복원시킨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문화적 수용을 시도하는 것만이 예배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온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와 관련한 유산들을 동시에 유지하고 복원하는 것을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가 이른바 과거와 미래 신앙의 연결(ancient-future faith)이라는 기획을 갖고 노력

11 Robert Webber, *Blended Worship: Achieving Substance and Relevance in Worship* (Peabody: Hendrickson, 1996), 66.

12 Robert Webber, *Ancient-Future Faith*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Ancient-Future Time* (Grand Rapids: Baker Books, 2004), *Ancient-Future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은 바로 전통과 현대의 균형 잡힌 통합을 위해서 기획된 것들이다. 아울러, 전체 7권으로 구성된 시리즈 Robert Webber, ed.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vol. 1-7 (Peabody: Hendrickson, 1995)은 기독교 예배의 전통과 현대의 통합을 위한 백과사전적 매뉴얼로 오늘날 대부분 생존하고 있는 많은 북미 예배학자들에 의해서 집필되어 출간된 방대한 연구물이다.

한 것은 오늘날 교회의 신앙과 예배가 자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연결성을 유지해야 기독교 예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디모데 웨버(Timothy Weber)가 정확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웨버는 “예배와 관련한 오늘날과 미래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교회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¹³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전통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인정한 웨버의 노력은 현대 교회들로 하여금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으로 주어진 예배의 자유 시대(time of liturgical indulgence)에 일정한 방향과 원칙을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좀 더 근본적인 전통 즉 성경과 초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 그리고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웨버의 전통과 현대의 통합적 예배는 북미 예배 역사에 또 다른 기여를 했다. 즉, 웨버는 예배의 예전적 요소와 가치를 복원하려 했고, 실용주의적 가치가 예배를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북미 복음주의 예배에 크게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s)이었다. 대각성 운동 이후, 북미의 복음주의 예배는 예전적 전통을 벗어나, 설교 중심의 예배를 발전시켰다. 이 때 시대적으로 드러난 예배 형태를 가리켜 프런티어 예배(the frontier worship)라고 한다. 프런티어 예배의 기본 형식은 준비(preliminaries)-설교(preaching)-응답(response)이라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진행된다.¹⁴ 이 예배 방식은 19, 20세기의 북미 복음주의 예배와 1970년대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미국 사우스 배링톤(South Barrington)에 위치한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구도자 예배(Seeker Service)의 기본 형식으로 고정되었다.¹⁵ 뿐만 아니라,

13 Timothy Webber, “Forward,” in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ed. Todd Johns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2), 11.

14 James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89), 171-191.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 교회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초기 예배도 역시 이러한 기본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¹⁶ 웨버는 이러한 예배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토드 존슨(Todd Johnson)이 지적한 바대로, “성례, 신조, 기독교의 영성과 예전적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¹⁷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친문화적이고 실용주의적 가치에 따라 예배를 구성하기보다는 예전적 전통이 담고 있는 기독교의 공동 유산들을 인정하고, 동시에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화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웨버의 동료였던 데니스 옥홀름(Dennis Okholm)은 그를 가리켜 기독교 전통의 복원과 현대문화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예배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한 인물로 평가했던 것이다.¹⁸

예배의 자유 시대에 전통과 현대 문화의 통합이라는 기획을 가지고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웨버의 노력을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가? 예배 안에서 전통을 복원하고, 현대 문화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원리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버의 통합적 예배를 현대 교회들에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웨버가 시도한 통합적 예

15 Todd Johnson, “Disconnected Rituals,” in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ed. Todd Johns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2), 53-66.

16 김경진, 주승중, 특별히 한국교회 초기 장로교 예배는 신학적 전통과 예전적 형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찬송과 성경공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라는 학습 중심의 형태로 발전되었음을 잘 지적했다. Seung-Joong Joo and Kyeong-Jin Kim, “The Reformed Tradition in Korea,” in *The Oxford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ed. Geoffrey Wainright and Karen Tuck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484-491 참고.

17 Todd Johnson, “Introduction,” in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ed. Todd Johns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2), 16

18 Dennis Okholm, “Robert Webber,” in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ed. Todd Johns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2), 199-214.

배에서 전통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대 문화적 요소와 통합시킬 전통에 대해서 웨버는 1-4세기 초대교회 예배를 전통의 기준으로 삼았다.¹⁹ 초대교회의 예전적 전통이 기독교 예배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적합한 연결의 모델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대문화적 요소들과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점은 성경과 초대교회의 방식에 따라 예배를 갱신해서 실천하려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노력과 다르지 않다.²⁰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 즉 예배와 예전적 요소들에 대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예전을 하나의 집약된 형태와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레고리 디스(Gregory Dix)는 자신의 책, *The Shape of the Liturgy*²¹에서 성찬을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의 예배 형성과 발전은 분명한 원리에 따라 적용하고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별히 폴 브레드쇼(Paul Bradshaw)는 초대교회 예배가 각 지역과 예배 공동체들마다 서로 다르게 실천했다는 역사적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쉽게 생각하듯이, 초대교회는 모든 공동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실천했다고 단정하는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을 공격했다.²² 물론, 각각의 예배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고 보는 완전한 회의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브레드쇼의 주장은 역사적 엄밀성에 근거해서

19 Webber, *Blended Worship*, 34-50.

20 예를 들어, 칼빈의 예배 모범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전통은 이후 교회 사역의 중요한 기준과 원리를 제공해준다. “The Form of Church Prayers and Hymns with the Manner of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and Consecrating Marriage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Ancient Church” in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197-208.

21 Gregory Dix, *The Shape of the Liturgy* (New York: Continuum, 2005).

22 Paul Bradshaw, *Eucharistic Origins* (London: SPCK, 2004), vi-vii 그리고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Christian Wo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ix-x.

전통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즉, 오늘날 현대교회가 통합의 대상으로 삼을 초대교회의 예배 요소들을 하나의 집약된 특징으로 쉽게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신약 연구를 기반으로 예배학을 다루는 고든 레이스롭(Gordon Lathrop)이 지적한 것처럼, “다양성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유사성”²³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발전한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들 가운데 오늘날을 위한 전통 내지는 대표가 될 수 있게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고려 사항은 예배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예배는 비록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보편적인 공통성을 지니지만, 각기 다른 신학과 신앙고백 그리고 실천적 전통에 따라서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서로 다른 신앙고백 전통을 지닌 교회 공동체들이 각자 지닌 신앙고백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의 실천에서 모두 같은 하나의 방향성을 지니는 것은 이상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모델로 보이기 는 하지만, 각각의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예배 신학의 핵심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실천 방식’(rule of prayer; *lex orandi*)과 ‘신앙 고백 내지는 신학’(rule of faith; *lex credendi*)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²⁴, 개혁주의자들의 경우, 믿음의 법 즉 신학이 예배의 방식 곧 실천을 결정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이 말은 예배의 실천은 그 예배

23 Gordon Lathrop, *The Four Gospels on Sunday: The New Testament and the Reform of Christian Worship*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2012), 45.

24 지오프리 웨인라이트(Geoffrey Wainright)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예배 행위(worship service)에 대한 신학적 고찰(theological reflection)을 더욱 강조했고, 에드워드 킬마틴(Edward Kilmartin)은 예배 행위와 신앙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주로 살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할 것. Geoffrey Wainright, *Doxology: The Praise of God in Worship, Doctrine, and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218-286; Edward Kilmartin, *Christian Liturgy: Theology and Practice* (Kansas City, MO: Sheed & Ward, 1988).

공동체가 지닌 신앙고백과 신학의 반영으로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 문화의 통합을 통해서 단일화 된 새로운 예배 모델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으로 보일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동시에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예배 공동체가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통합적 예배 모델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통과 현대 문화를 통합한 단 하나의 방식의 예배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예배 갱신의 원리와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일지라도 기독교 역사와 신학의 측면에서는 제한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5 개혁주의 교회들의 예배 갱신을 위한 원리와 방향

위에서 웨버가 제시한 전통과 현대 문화의 통합이라는 이상적인 제안이 지닌 가치를 유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따르는 교회들의 예배 갱신의 원리와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웨버의 통합적 예배에 대한 비평적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의 실천은 그 예배를 실천하는 예배 공동체의 외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각각의 예배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신앙고백을 지닌다. 신앙 고백은 단순한 선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고백 자체는 고백된 신앙의 실천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배 공동체의 신앙고백은 그 고백된 신앙의 실천을 결정할 뿐 아니라(*lex orandi, lex credendi*), 정확히 일치하도록(*the practice congruent with the confession of faith*)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실천(*what they practice*)은 그들의 신앙고백(*what they confess*)과 일치해야(*congruent*) 한다. 이러한 예전적 주장이 필요한 이유는 개혁주의가 종교 개

혁 이후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논증에 많은 노력을 했고, 역사적으로 매우 견고한 신앙고백과 신조들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와 고백에 따른 신앙의 실천에 대한 강조와 책임 있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은 중세 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성경적인 의미로 바로 잡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교리의 분명한 강조와 함께 그 교리와 고백에 따른 신앙의 실천에 대한 강조와 책임 있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다.²⁵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의 신앙고백과 실천의 일치에 따른 예배 갱신을 위해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어떤 원리와 방향을 따라야 하는가? 갱신을 위한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고려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갱신을 위해서 새로운 것 자체에 대한 신학적 분별과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배를 갱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목회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 회중들에게 가장 주목받거나 매력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것 자체가 새로운 대안이라는 생각을 예배 갱신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받아들이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교회성장을 이끌 수 있는 예배 방식을 신학적 고려 없이 수용하게 된다.²⁶ 예배 갱신과 관련한 목회적 책임은 회중들이 그들의 삶과 문화에서 친숙하게 익힌 가치를 무조건 수용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신학자 윌리엄 윌리몬(William

25 로마 카톨릭의 경우, 신앙고백과 신조에 따른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한 다양한 성례가 인생의 전 여정을 배경으로 주어졌고, 구체적인 영성 함양(spiritual formation)을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이 발전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의 신앙체계를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과 실천의 연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개신교 신앙과 신학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볼 요소이다.

26 이런 영향 때문에, 기독교 예배 역사와 전통에서 최근에 소비주의와 친문화적 관점의 예배로 불리워지는 구도자 예배(seeker-sensitive service; seeker-driven service)가 등장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Willimon)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개혁주의 목회자들 뿐 아니라, 현대 목회자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소비주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 외에 목회적 가치 기준이 없이 사역하는 것이다.²⁷ 따라서 예배 갱신과 관련해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새로운 전통과 현대 문화의 통합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관심보다 더욱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야 한다.

첫째, 예배 갱신의 더욱 근본적인 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개혁주의 예배가 말씀 곧 설교 중심의 예배라는 특징²⁸을 지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단순히 설교뿐 아니라 기도, 찬양, 성찬 등의 구성요소를 지닌 예배를 포함한 신학과 실천의 모든 근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²⁹ 예배 갱신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을 때, 가장 큰 논쟁은 규율 원리(the Regulative Principle)와 관련한다. 즉, 성경에서 분명히 인정하는 것(sanctioned by the Scriptures)만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다.³⁰ 이와 관련해

27 William Willimon, *Pastor: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ain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2), 55-74 참고.

28 Robert Kingdon, “The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Vol XX (1999, Number 3): 264.

29 Janos Pasztor, “Calvin and the Renewal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Reformed World*, Vol 40 (June 1988): 910. 그는 개혁주의 전통의 규율은 성경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the norm of this tradition is Scripture and not something developed in Reformed churches over the centuries.”

30 청교도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대부분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규정한 것만 예배의 원리가 될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최근의 입장은 이보다 좀 더 확대된 태도를 보인다. 즉, 가치중립적인 요소나 언약의 기준에 따라 좀더 유연성을 지녀야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히, Robert Gore Jr., *Covenantal Worship: Reconsidering the Puritan Regulative Principle*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02) 그리고 Michael Farley, “What Is Biblical Worship? Biblical Hermeneutics and Evangelical Theologies of Worship,” presented at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San Diego, California, November 14, 2007.

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대부분 동의하고 동시에 분명한 것은 성경과 예배의 상호 관련성을 본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이 공동 예배만을 위한 예배모범서가 아니라, 예배의 원리, 방향, 구성요소, 진행방식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결정한 것이 매뉴얼의 성격을 지닌 ‘디렉토리’(the Westminster Directory)라는 점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주어진 예배 형식을 시대와 상관없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In the Bible) 담긴 예배의 원리와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과 예배(Bible and Worship)의 구체적인 구성과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시대에 분별력 있게 적용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회 역사에서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의식과 연결시켰다.³¹ 시편은 유대공동체뿐 아니라 초대교회 전통에서 찬양의 형식을 사용한 기도의 언어와 구성 요소를 지배했다.³² 복음서는 주일 예배에서 빠짐없이 읽혀짐으로써, 서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면서 공동체의 예배를 성경적으로 갱신하는데 사용되어졌다.³³ 이와 같이 예배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 갱신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는 예배 스타일과 형식이 성경적이냐? 를 규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언어와 내용 자체를 예배에 좀 더 적극적이고 풍부하게 사용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할 것이다.

둘째,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예배 갱신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중심성이다. 하나님 중심성의 신학을 지닌 개혁주의 신학은 예배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³⁴ 예배를 포함한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개혁주

31 Simon Chan, *Liturgical Theology: The Church as Worshiping Community* (Downers Grove: IVP, 2006), 109-114.

32 John Witvliet, *The Biblical Psalms in Christian Worship: A Brief Introduction and Guide to Resources* (Grand Rapids: Eerdmans, 2007).

33 Lathrop, *The Four Gospels on Sunday* 참고 할 것.

의에서 언급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삼위일체의 신학을 의미한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초석을 마련한 칼빈의 경우도 삼위일체와 예배의 연결을 제네바에서 사용한 그의 예배모범서(The Form of Church Prayers, 1542)에서 분명히 밝혔다.³⁵ 칼빈의 삼위 일체 신학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방식으로 이해한 필립 부틴(Philip Butin)의 경우도 참된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주도적 이끄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보았다.³⁶ 또한 개혁주의 예배 신학과 실천의 성경적 초석을 마련한 장 작크 본 알멘(Jean Jacques von Allmen)도 기독교 예배를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기독교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이 만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Christian worship is the meeting of Jesus Christ and His Church who together, in the Holy Spirit, glorify God the Father.)”³⁷이라고 명백하게 규명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원리를 예배의 실천에서 갱신의 원리로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³⁸ 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자 주체라는 고백

34 D. G. Hart and John Muether, *With Reverence and Awe*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02), 184. 이와 함께 성경 중심과 삼위 하나님의 중심성이 개혁신학과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라는 점은 최근 장로교 신학의 맥을 심도 있게 고찰한 문병호 교수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문병호, “한국 장로교 신학의 맥: 칼빈, 녹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형룡의 기독교론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22권 (2012): 147-150.

35 “Deign, then, O most gracious and most merciful God and Father, to bestow thy mercy upon 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y Son our Lord. Effacing our faults, and washing away all our pollutions, daily increase to us the gifts of thy Holy Spirit.” John Calvin, “Forms of Prayer For the Church (1542),” in *Calvin’s Tracts*, vol.2, trans. Henry Beveridge (Eugene, OR: Wipf and Stock, 2002), 100; 이탤릭은 본 연구자에 의한 것임.

36 Philip Butin, “Constructive Iconoclasm: Trinitarian Concern in Reformed Worship,” *Studia Liturgica* 19, no. 2 (1989): 135-139.

37 Jean Jacques von Allmen, “Theological Frame of a Liturgical Renewal,” *Church Quarterly* 2, no. 1 (1969): 11.

38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삼위일체 신학과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을 연결시킨 학자는 John Witvliet이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nd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Christian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1997)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과 기능이 없으며, 동시에 죄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걸림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고 예배 실천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호튼 데이비스(Horton Davies)는 개혁주의 예배의 중요한 원리가 죄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라고 했다.³⁹ 윌리엄 더니스(William Dymess) 역시 죄가 단지 교리적으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confessions and assurance)이 개혁주의 예배에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고 보았다.⁴⁰ 칼빈은 이런 이유로 모든 공예배의 시작에서 죄의 인정과 예배의 걸림돌과 불가능성에 처한 인간의 상황을 정확히 고백(Confession)하는 순서를 반드시 포함시켰다. 또한 예배의 대상이자 주체를 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예배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참여이다. 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면, 인간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위 하나님의 신학을 예배에 적용할 때, 가장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할 부분은 바로 회중들이 예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신학의 반영이 가장 잘 드러난 개혁주의 예배 원리는 회중찬양이다. 칼빈 뿐만 아니라 이후의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시편(성경)으로 구성된 찬양을 대중들에게 친숙한 리듬을 사용해서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일에 적극 노력했다. 개혁주의가 예배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도 바로 이 회중찬양의 실천이다.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과 구별된 찬양을 시도하는 성가대 또는 찬양대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의 구별된 음악

을 참조할 것.

39 Horton Davies, *The Worship of the English Puritans* (Morgan, PA: Soli Deo Gloria, 1998).

40 William Dymess, “Confession and Assurance: Sin and Grace,” in *A More Profound Alleluia*, ed. Leanne Van Dyk (Grand Rapids: Eerdmans, 2005), 31-54.

적 재능을 회중들에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해야하는 분명한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6 개혁주의 예배 갱신을 위한 실천적 제안

예배 갱신은 이 글에서 지속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분명한 원리와 방향에 따라서 실천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다. 개혁주의 예배에 대한 원리와 방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처럼 전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결을 존중하지만, 그것을 넘어선다.⁴¹ 성경과 삼위일체 신학이 예배의 근본 원리이자 갱신의 방향이라고 확신할 때, 실제 지역 교회들에서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예배 갱신을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의 실천사항은 예배 지도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예배와 관련해서 목회자의 역할은 다가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 본문을 정해서 설교 준비를 한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설교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주의 예배가 비록 말씀 곧 설교 중심의 방식을 따르지만, 설교는 예배 안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회중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상호 대화를 통해서 예배⁴²하는 과정에 설교는 성경읽기와 더불어 하나님 편에서 회중들에게 전하는 방식의 대화이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헌금 등은 회중 편에서 하나

41 예배 갱신과 관련한 각 전통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카톨릭은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 강조, 개신교의 전통교단들은 예배 모범서의 재발견과 보급 활성화,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예배의 전통적 유산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갱신을 시도하고 있다.

42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Nicholas Wolterstorff는 예배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화”(a dialogue between God and God's people)로 정의한다. Nicholas Wolterstorff, “Thinking about Church Music,” *Music in Christian Worship*, ed. Charlotte Kroeker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5), 10.

님에게 내어드리는 거룩한 만남을 구성하는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대화의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예배 갱신을 위해 목회자들은 단지 설교 준비와 구성 뿐 아니라, 그 설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거룩한 대화로서의 예배 전체가 하나의 연관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목회자가 직접 모든 순서를 이끌거나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정해진 또는 기획된 순서에서 드러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예배 행위들이 모두 일관성 있는 내용과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목회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로, 예배의 실천이 예배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가리켜 이른바 예전의 신학(Theology of Liturgy)라고 한다.⁴³ 모든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은 그 자체에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목회자는 자신이 속한 회중들의 예배 실천에 드러난 신학적 의미를 자신의 예배에 대한 이해와 일치(congruence)시키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경을 강조하는 예배 전통을 확신하는 개혁주의자들은 예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예배에서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예배의 구체적인 진행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성경 말씀을 담아내는 설교의 강력한 힘보다는 설교자의 수사나 감정적 만족과 그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으로 예배를 이끄는 것은 상호 모순이다. 아울러, 초월적 기독교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찬양에서 담아내는 가사들은 주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경우도 고백과 실천 사이의 모순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예배의 구체적인 진행에서 일치되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새롭게 전환시키

43 이것은 예배에 관한 이해와 실제적인 참여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예전 신학(Liturgical Theology)과 구분된다.

는 것이 갱신의 올바른 단계이다.

셋째,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 갱신을 위해서 어느 하나의 특정한 형태나 방식을 답습하려는 노력을 지양(止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주의 전통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고백과 그 고백의 구체적인 실천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답습하지 않았다. 물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John Knox)의 예배 형태는 칼빈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후 발전한 개혁주의자들의 예배, 특별히 영국의 개혁주의 장로교와 유럽의 개혁주의 예배 그리고 북미로 건너온 개혁주의 예배는 그 원리와 방향성에 있어서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서로 달랐다. 물론, 현대교회에서는 개혁주의적 정체성과는 별도로 다른 요인들 즉, 교회성장이나 예배 회중들의 만족을 위해서 문화적 동조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예배 형태를 답습하려는 경향이 더욱 크다.⁴⁴ 따라서, 예배 갱신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전통적 예배의 한 형태나 새로운 문화에서 발전된 예배 형태를 갱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천 사항이 있다. 즉, 예배의 핵심 구성 요소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의 예배 공동체를 위해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구하며, 창의적으로 예배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어느 하나의 고정된 방식을 답습할 경우,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직접적인 과제는 새로운 예배를 답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이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 같은 자원과 장비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식을 모델로 따라갈 경우 그러한 자원을 지니지 못한 교회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니게 될 것이다.

44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구도자 예배나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이머징 예배 등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된 형태들이다.

7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혁주의 예배 갱신의 원리와 방향은 전통에의 회귀도 아니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신학적 신증함이 결여된 동조도 아니다. 오히려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이 현대 문화와 지닌 거리감을 인정하면서, 예배 지도자들의 분별력과 창의성을 통해서 각각 새롭게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어느 하나의 고정된 예배 모범서를 따르기보다는 개혁주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실천된 예배 모범서들과 구체적인 실제들 사이를 정확히 비교 연구하면서 주어진 원리들을 ‘지금 이곳’에서 드러내야 한다. 특별히 개혁주의자의 경우 신앙고백과 신조 내지는 신학적 선포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낸 반면, 그 고백의 실천과 실제의 핵심인 예배에서도 그러한 고백과 선포가 정확하고 분명히 드러났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예배에서 개혁주의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현대 예배 갱신의 흐름 속에서 복음주의적 갱신의 방향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고,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비평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했다. 따라서 역사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갱신의 방향과 원리는 살펴볼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나아가 개혁주의 예배의 원리를 담고 있는 예배 모범서들(칼빈, 나스, 그리고 유럽과 영국의 예배 모범서들과 현대 개혁주의 장로교단들의 예배 모범서들)이나 구체적인 매뉴얼(이를테면, Westminster Directory)을 심도 있게 살피고 그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삼위일체 신학적 특징을 지닌 개혁주의 예배 원리를 분명히 이끌어 내었고, 그에 따라 목회 현장에서의 분별력 있고 창의적인 예배 갱신이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제안한다. 개혁주의 예배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전통과 문화의 간격 사이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문병호. “한국 장로교 신학의 맥: 칼빈, 녹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형룡의 기독교론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제22권 (2012): 119-156.
- Abraham, William. *The Logic of Renewal*. Grand Rapids: Eerdmans, 2003.
- Bradshaw, Paul. *Eucharistic Origins*. London: SPCK, 2004.
- _____.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Christian Wo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Butin, Philip. “Constructive Iconoclasm: Trinitarian Concern in Reformed Worship.” *Studia Liturgica* 19, no. 2 (1989): 133-142.
- Calvin, John. *Calvin's Tracts*, vol.2.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Eugene, OR: Wipf and Stock, 2002.
- Chan, Simon. *Liturgical Theology: The Church as Worshiping Community*. Downers Grove: IVP, 2006.
- Davies, Horton. *The Worship of the English Puritans*. Morgan, PA: Soli Deo Gloria, 1998.
- Dix, Gregory. *The Shape of the Liturgy*. New York: Continuum, 2005.
- Dymess, William. “Confession and Assurance: Sin and Grace.” In *A More Profound Alleluia*, edited by Leanne Van Dyk. Grand Rapids: Eerdmans, 2005.
- Fagerberg, David. *Theologia Prima, What is Liturgical Theology?* Chicago: Liturgical Training Publications, 2004.
- _____. *What is Liturgical Theology? A Study in Methodology*.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2.
- Farley, Michael. “What Is Biblical Worship? Biblical Hermeneutics and Evangelical Theologies of Worship.” presented at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San Diego, California, November 14, 2007.
- Gore, Jr., R. J. *Covenantal Worship: Reconsidering the Puritan Regulative Principle*.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02.
- Hilkert, Mary. *Naming the Grace: Preaching and the Sacramental Imagination*. New York: Continuum, 1997.
- Johnson, Todd. ed.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Grand Rapids: Brazos, 2002.
- Joo, Seung-Joong and Kyeong-Jin Kim. “The Reformed Tradition in Korea,” In *The Oxford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edited by Geoffrey Wainright and Karen Tuck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Kavanagh, Aidan. *On Liturgical Theology*. Collegeville: A Pueblo Book, 1992.
- Kilmartin, Edward. *Christian Liturgy: Theology and Practice*. Kansas City, MO: Sheed & Ward, 1988.
- Kingdon, Robert. "The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Vol XX Number 3. New Series (1999).
- Koenig, Sarah. "This is My Daily Bread: Toward a Sacramental Theology of Evangelical Praise and Worship." *Worship* 82 no 2 (2008): 141-161.
- Lathrop, Gordon. *The Four Gospels on Sunday: The New Testament and the Reform of Christian Worship*.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2012.
- Old, Hughes. *Worship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Pasztor, Janos. "Calvin and the Renewal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Reformed World*, Vol 40 Number 2 (June 1988).
- Redman, Robb. *The Great Worship Awakening: Singing a New Song in the Postmodern Church*. San Francisco: Jossey-Bass, 2002.
- Ruth, Lester. "A Rose by Any Other Name." In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edited by Todd Johns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2: 46-51.
- Schmemmann, Alexander. *Introduction to Liturgical Theology*.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66.
- Thomp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61.
- Von Allmen, Jean Jacques. "Theological Frame of a Liturgical Renewal." *Church Quarterly* 2. no. 1 (1969): 8-23.
- Wainright, Geoffrey. *Doxology: The Praise of God in Worship, Doctrine, and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Webber, Robert. *Ancient-Future Faith*.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 _____. *Ancient-Future Time*. Grand Rapids: Baker Books, 2004.
- _____. *Ancient-Future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 _____. *Blended Worship: Achieving Substance and Relevance in Worship*. Peabody: Hendrickson, 1996.
- Webber, Robert. ed.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vol. 1-7. Peabody: Hendrickson, 1995.
- White, James.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89.

Willimon, William. *Pastor: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ain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2.

Witvliet, John. *The Biblical Psalms in Christian Worship: A Brief Introduction and Guide to Resources*. Grand Rapids: 2007.

_____.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nd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Christian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Ph. D. Diss, University of Notre Dame, 1997.

Wolterstorff, Nicholas. "Thinking about Church Music." In *Music in Christian Worship*, edited by Charlotte Kroeker.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5.

국문초록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한 예배갱신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예배 갱신의 역사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그 가운데 등장한 복음주의적 예배 갱신의 통합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찰과 비평을 바탕으로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따르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갱신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와 방향 및 목회적 실천 사항을 제시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예배 갱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로마카톨릭의 갱신 방향이다. 이들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관점에 따라 예배 회중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의 문화화'를 적극 권장했고, 나아가 개신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관심과 설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둘째는 개신교의 주요교단들의 갱신 방향이다. 이들은 예배 모범서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정보완을 통해서 예배 규범에 따른 예배 갱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세 번째는 복음주의자들의 갱신 방향이다. 이들은 주로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대 문화와 전통의 통합 방식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예배 갱신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오늘날 교단과 상관없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갱신의 방향은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의 통합예배 방식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현대 교회 예배 갱신의 흐름 속에서, 교회성장이나 문화 소비주의적 관점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갱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부합한 실천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하나의 원리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과 삼위일체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 예배는 단지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넘어서서, 성경 자체가 예배의 진행과 구성에 핵심을 차지하게 해야 하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역동적 예배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갱신의 방향과 원리를 삼아야 한다. 예배 지도력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은 특별히 어느 하나의 고정된 모델을 신학적 비평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답습하기보다는 창의적 분별력을 통해 각자의 예배 갱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예배갱신, 성경, 삼위일체, 개혁주의 예배, 신앙과 실천의 일치

A New Direction of Worship Renewal for the Reformed Churches in Korea

Joo, JongHun

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Contemporary churches embrace a task of renewing the service of worship that has been regarded as a significant sign of identifying church community. Since the Vatican Council II, the last five decades have witnessed remarkable changes in the practice of Christian worship beyond the denominations as results of worship renewal movement. This essay first surveys the brief history of worship renewal mainly in the North America since the early 1960s and then addresses and at the same time criticizes the evangelical integration of worship which is known as 'blended worship' or 'conversant worship' in the light of a Reformed perspective. Based on this historical and critical understanding of worship renewal, this essay suggests new principle and direction to the Reformed churches in Korea by promoting the practices of Reformed worship that is congruent with the confessions of Reformed faith.

There have been mainly three directions of renewing Christian worship for the past half a century. First, Roman Catholics has attempted to accommodate to each indigenous worshipping community by promoting inculturation. At the same time Catholic churches have highly been involved in developing the methods and skills of sermon. Second, the Protestant mainline denominations turned back their interests to the formularies or texts of worship service by actively revising and distributing them. Third, the Evangelicals have been attempting to integrate between the legacies of biblical and traditional resources and contemporary culture in and through the service of worship.

In the midst of complex and various contexts of worship renewal, Reformed churches should take their own direction not by simply adopting the new trend or style of worship services that have been erupted with the premise of the church growth and consumerism but by creatively articulating the practice of worship congruent with the Reformed confession of faith with pastoral

discretion. Although it cannot be simplified into an abstract statement, it is certain that the Bible and the Trinitarian theology are at the core of Reformed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hristian faith. Consequently, Reformed worship must not only attempt to find out the biblical foundations of the practices but also more seriously and actively articulate the ways of how to engage with the Word by placing the scriptures as the main component and content of worship. At the same time, Reformed worship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rofessional performance; rather, the assembly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holy acts of glorifying the God Father through the Christ in the help of the Holy Spirit. In conclusion, Reformed worship leaders and pastors should not follow any new and attractive model of the service of worship so much as articulate the service of worship appropriate to their understanding of worship with pastoral discretion.

Key Words: Worship Renewal, The Bible, Trinity, Reformed Worship, Congruence between Confession and Practice.